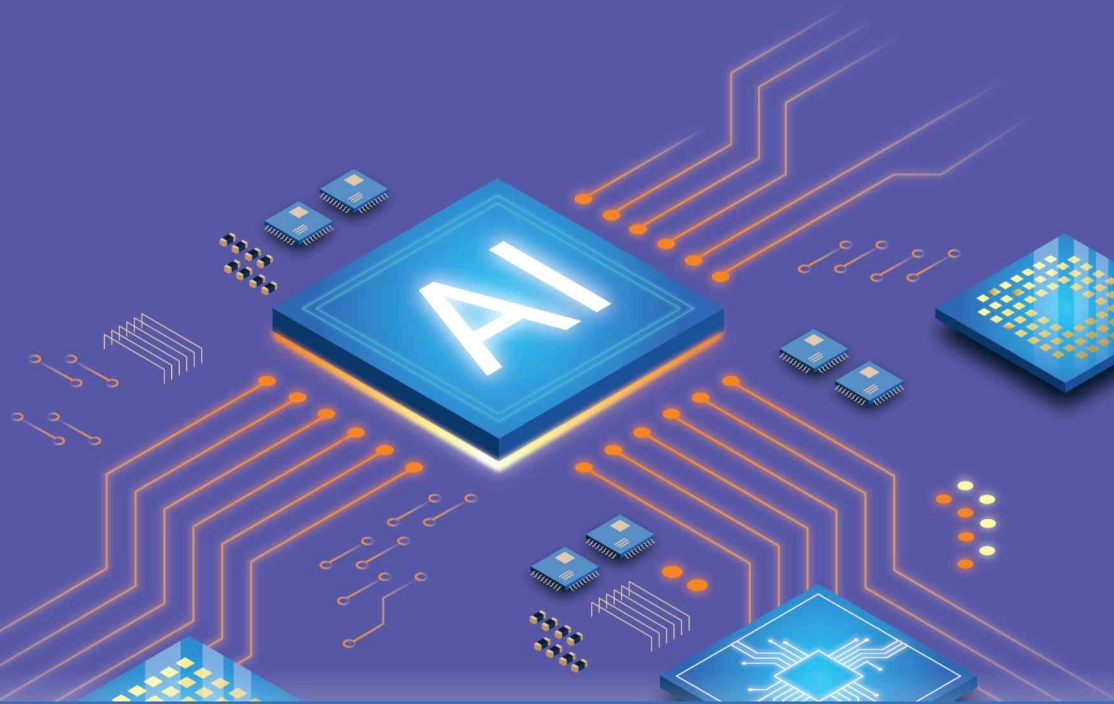


[AI Policy Insights | 2026 Vol. 03]

2026 스탠포드 AI INDEX로 살펴본 우리나라 AI 현황 분석

2026.06.26.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스탠포드 AI INDEX로 살펴본 우리나라 AI 현황 분석

CONTENTS

1. 2026 스탠포드 AI INDEX가 말하는 글로벌 흐름과 우리나라의 현주소	1
2. 분야별로 살펴본 우리나라 AI의 역량과 과제	9
3.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시사점	46

| 작 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AI정책연구팀

- 백 인 수 수석(053-230-1289, insu@nia.or.kr)
- 정 덕 화 선임(053-230-1286, hotsummer@nia.or.kr)

| 기 획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 이 용 진 실장
- 김 태 원 팀장

01

2026 스탠포드 AI 인덱스가 말하는 글로벌 흐름과 우리나라의 현주소

1 글로벌 AI 트렌드 : 기술의 일상화와 국가별 자원 확보 경쟁¹⁾

▶ 글로벌 AI 생태계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미·중 패권 경쟁을 동력 삼아 일상과 고용 시장을 전례 없는 속도로 뒤흔들고 있으며, AI 자체의 기술적 결함(환각·로봇 실패)과 사회적 안전장치(교육·거버넌스 지연), 그리고 환경적 비용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격차와 위기 직면

□ 기술 역량의 가속화와 영역별 편차의 역설

- 프론티어 모델은 박사급 역량에 도달하고 SWE-bench Verified 코딩 성능이 인간 기준 100%에 근접했으나,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준의 모델이 아날로그 시계는 50.1% 정확도로 판독하는 불균형이 존재

□ 미·중 패권 심화와 TSMC 공급망 독점 취약성

- Anthropic과 DeepSeek 등의 AI 모델 간 성능 격차가 2.7%로 좁혀지는 등 미·중 성능 격차가 사실상 미미
- 미국은 5,427개 데이터센터를 보유해 압도적인 인프라를 자랑하나, 핵심 칩 생산은 대만 TSMC 단일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취약성 존재

□ 역사적 속도의 시장 도입 및 천문학적 투자 유입

- 생성형 AI는 출시 3년 만에 미국 기준 도입률이 53% 이상으로 과거 PC나 인터넷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었으며, 기업의 도입률 역시 88%에 달함
- 2025년 전 세계 기업의 AI 투자액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5,817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이며, 이 중 민간 투자액은 3,447억 달러이고 생성형 AI 투자액은 1,709억 달러로 민간 투자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

※ (참고) 기업 (corporate) AI 투자액 > 민간 (private) 투자액 > 생성형 AI 투자액

1) 2026 스탠포드 AI INDEX의 15개 Top Takeaways를 요약·정리함

□ 노동 시장의 실질적 고용 충격 및 워크플로우 대체

- AI 도입 효과가 큰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2~25세 초급(신입) 개발자의 고용(employment)이 20% 감소하는 큰 고용 충격이 나타남
- 과학 연구나 의료 현장에서는 AI가 단순히 인간의 업무를 돕는 수준을 넘어, 실험이나 진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시도가 본격화

□ 물리적 AI(Physical AI)와 로봇 공학의 이상과 현실 간 격차

- AI 로봇은 잘 정돈된 실험실(RLBench)에서 89.4%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나, 실제 가정 환경에서는 성공률이 12%로 급감

□ 프론티어 모델의 투명성 및 환각(Hallucination) 취약성

- 주요 AI 기업들이 기술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AI 투명성 점수'가 크게 하락(58점 → 40점), 오작동 등 AI 관련 사고는 55% 급증 (2024년 233건 → 2025년 362건)
- 특히 사용자가 거짓 정보를 진짜처럼 꾸며 유도 질문을 던질 경우, GPT-4o(정확도 64.4%)나 덤시크 R1(정확도 14.4%) 같은 최신 AI마저 올바른 답을 고수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취약성 보임

□ 기업 거버넌스 병목과 제도권 교육의 지연

- 기업들은 AI 책임 부서를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 지식 부족(59%)과 예산 한계(48%)로 실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 현장 또한 미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80% 이상이 AI를 일상적으로 쓰는 반면, 교사 중 명확한 지도 지침을 받은 비율은 6%에 불과해 학생들의 활용 속도를 공식 교육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폭발적인 탄소 배출 및 수자원·에너지 환경 비용

- Grok 4의 1회 훈련 탄소 배출량(72,816톤)은 자동차 1,000대가 평생 배출하는 탄소량을 넘는 수준이며, 데이터센터 총 전력 용량은 29.6GW로 뉴욕주 피크 전력과 대등한 임계점에 도달

2 2026 스탠포드 AI INDEX가 말하는 우리나라 현주소

□ 글로벌 상위권의 정량적 혁신 성과와 특허 밀도

- 우리나라는 2024년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 1위, 2025년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세계 3위(총 8개)를 기록하며, 인구 규모 대비 높은 AI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보임

□ 글로벌 AI 공급망의 하드웨어 주도권(HBM 생태계)

-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속에서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

□ 소버린 AI(Sovereign AI) 역량과 선제적 법제화

- 한국어와 국내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기반모델 및 벤치마크 개발 사례가 확인되며, 한국 특화 AI 생태계 구축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국가 차원의 AI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AI 활용과 투자에 필요한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 중

□ 산업 로봇 밀도 및 물리적 AI(Physical AI) 융합 기반

- 대한민국은 연간 30,600대의 산업용 로봇을 신규 설치하여 로봇 도입 수에서 전 세계 4위 기록, 세계 최상위권 '로봇 밀도(Robot Density)'와 풍부한 제조 공정 인프라 보유국

□ 생성형 AI 도입률 상승폭 세계 1위의 역동성

- 202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기준 인구 대비 AI 도입률 상승폭에서 조사 대상 30개국 중 세계 1위(+4.8%p)를 기록하며 국내 AI 활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내실 있는 성장으로 가기 위한 개선 필요

- 특허의 양적 성과가 후속 연구와 산업적 영향력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인용도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AI 저자·발명가 이동성 지표에서 순유출이 확인되는 만큼,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창업,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과제로 제시됨

[AI Index 2026 한국 주요 결과 요약]

1.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분야	세부	지표명	한국결과	출처
주목할 만한 AI 모델 Notable AI Model	국가별 소속 기준	주요 AI 모델 수	3위 (8개)	Epoch AI
데이터센터 Data Centers	GPU를 넘어선 AI 인프라	HBM 글로벌 제조사	글로벌 3개 기업 중 2개 (SK하이닉스, 삼성)	AI Index
	지리적 분포	데이터센터 분포	32위 (43개) ※ Cloudscene 기준이며, 한전 기준('26.2) 161개	Cloudscene, 2025
특허 Patents	글로벌 추세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 (10만 명)	1위 (14.31건)	AI Index
	후속 인용 흐름	AI 특허 전방인용 점유율	4위 (4.79%)	
	지식 확산 속도	AI 특허 지식확산 속도	4위 (0.42)	
	기술적 근접성	마·중 대비 AI 특허 기술적 근접도	산점도 중간 위치 (X축 0.85, Y축 0.73)	
AI 저자 및 발명자 AI Authors and Inventors	지리적 분포	AI 저자·발명가 수	16위 (5,960명)	Zeki Data
		인구 대비 AI 저자·발명가 수 (10만 명)	차트 미포함 (15위 밖)	
	교육 수준별	AI 저자·발명가 학력	박사 비율 4위 (42.50%) ※ 석사 비율 31.76% 학사 비율 9.60% 기타 16.00%	
	성별	AI 저자·발명가 성별	남성 비율 81.44%	
	전문 분야별	AI 저자·발명가 전문 분야별 비율	하드웨어, VLSI, IoT가 20% 비율을 차지	
	이동성	AI 저자·발명가 이동성* *Net Flow	순유출 (-1.75)	

2. 기술 성능 (Technical Performance)

분야	세부	지표명	한국결과	출처
로보틱스와 자율 동작 Robotics and Autonomous Motion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한국 기업 2개 포함 (Rainbow Robotics, LG Electronics)	AI Index

3. 책임 있는 AI (Responsible AI)

분야	세부	지표명	한국결과	출처
학계에서의 책임 있는 AI RAI* in Academia * Responsible AI	지리적 분포	주요 AI 학회 책임 있는 AI 논문 게재 수	8위 (57건)	AI Index
책임 있는 AI 정책 형성 RAI* Policymaking * Responsible AI	주요 분석: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 현황	글로벌 AI 거버넌스 파트너십 8개 중 6개 참여	Governing AI for Humanity, United Nations, 2025; AI Action Summit, 2025
공정성과 편향 Fairness and Bias	문화 및 언어 다양성	한국어 특화 기반모델·벤치마크 개발 현황	한국어 4건 언급 ※ KoBEST(2022), HAE-RAE(2023) Polyglot-Ko, HyperCLOVA X	AI Index
보안과 안전성 Security and Safety	글로벌 AI 안전 연구소	AI 안전연구소(AISI) 설립·운영 현황	개발 중(in development) ※ 2025년 3월 기준, 현재는 운영중	All Tech is Human

4. 경제 (Economy)

분야	세부	지표명	한국결과	출처
투자과 인프라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민간 투자 활동	민간 AI 투자액	12위 (17.8억 달러)	Quid
		민간 AI 투자액 누계	9위 (107.5억 달러)	
		신규 투자유치 AI 기업 수	9위(59개)	
		신규 투자유치 AI 기업 누계	10위(329개)	
기업의 AI 도입 Corporate AI Adoption	주요 분석: AI 확산 신호 측정	상위 30개국 AI 확산률	2025년 하반기 18위 ※ 상반기 25.9%, 하반기 30.70%, 상승폭 1위 (+4.80%p)	Microsoft AI Economy Institute
일자리 Jobs	AI 채용	전체 채용 증가율과 AI 채용 증가율 비교	9.93%	LinkedIn
	AI 인재 집중도	AI 인재 집중도	11위 (1.05%)	
		AI 인재 순이동	순유출 (-0.35) ※ LinkedIn 회원 1만명 기준	
로봇 도입 Robot Deployments	지리적 패턴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	4위 (30,600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전년 대비 증가율	6위 (△3%) ※ 증가율 감소 국가에 해당	

5. Medicine (의학) ※ Ch.5 Science(과학)에는 ‘한국’ 결과 없음

분야	세부	지표명	한국결과	출처
환자 참여 Patient Engagement	의료 분야 AI에 대한 환자 관점	의료 AI 환자 인식 연구 출판물 수	공동 9위 (5건)	RAISE Health

6. Education (교육)

분야	세부	지표명	한국결과	출처
고등교육 단계의 컴퓨터과학 및 AI 교육 Postsecondary CS and AI Education	전 세계 ICT 졸업자	ICT 단기과정 신규 졸업자 수	2022년 9위 (6,983명) →2023년 7위 (6,685명)	OECD
		ICT 학사 신규 졸업자 수	2022년 6위 (19,603명) →2023년 6위 (19,591명)	
		ICT 석사 신규 졸업자 수	2022년 12위 (2,910명) →2023년 12위 (3,261명)	
		ICT 박사 신규 졸업자 수	2022년 5위 (617명) →2023년 5위 (585명)	
		ICT 고등교육 졸업자의 여성 비율	박사의 19%, 석사의 26%, 학사의 32%, 단기과정의 24%	
	학생의 AI 도구 사용	대학생 생성형 AI 학업 활용률 (2023 vs 2025)	23%(2023), 84%(2025) ※ 상승폭 1위 (+61%p)	Chegg Global Student Survey
K-12 컴퓨터과학 및 AI 교육 K-12* CS and AI Education * 유치원(Kindergarten)부터 12학년(한국 고3에 해당) 까지의 초·중등 정규교육 단계를 통칭하는 미국 교육 체계 용어	글로벌 AI 및 컴퓨터과학 교육	초등 AI 교과서 도입·철회 사례	한국은 2025년 3월 초등학교에 AI 교과서를 도입했으나, 학부모와 교사의 반발로 몇 달 만에 정책을 철회하였음	AI Index
		컴퓨터 과학(CS) 정규교육 도입 현황	의무 교육 상태로 분류 ※ CS mandatory in primary and/or secondary school	AI Index, 2025; Raspberry Pi Computing Education Research Centre, 2024
AI 역량 습득 AI Skill Acquisition	AI 기술 확산	AI 스킬 확산 지수	AI 리터러시(5.64), AI 엔지니어링(16.78)	LinkedIn

7. 정책·거버넌스 (Policy and Governance)

분야	세부	지표명	한국결과	출처
국가 AI 전략 National AI Strategies	지리적 권역별	AI 국가전략 수립 현황	2019년부터 국가 AI 전략 보유	Oxford Insights, 2024: AI Index, 2026
AI 주권 AI Sovereignty	인프라 주권	엔비디아 및 오픈AI와 AI 인프라 이니셔티브 협력 국가	엔비디아 및 오픈AI 모두와 이니셔티브 보유	Stanford HAI
	애플리케이션 주권	AI 응용 분야, 재원별 투자 분포	농업/환경 0억 달러, 비즈니스/기업 서비스 17.3억 달러 등	Brookings
AI와 정책 형성 AI and Policymaking	AI 관련 글로벌 입법	G20 AI 관련 법률 제정 누계	2위 (17건)	AI Index, Digital Policy Alert
		AI 관련 법률 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AI Index

8. 대중 여론 (Public Opinion)

분야	세부	지표명	한국결과	출처
AI에 대한 글로벌 인식과 정서 Global Sentiment Toward AI	-	AI 제품·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인식	2025년 기준 이점이 더 많다라는 응답이 67%	Ipsos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인식	AI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70% 등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로벌 인식	AI와 삶의 개선 인식	우리나라 경제 개선 29% 노동 시장 개선 14% 나의 직업 개선 18% 등	
		개인직업·고용시장에 대한 AI의 긍정적 영향 인식	취업 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식 14% 개인 직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식 18%	
		AI와 일자리 변화 인식	창출 Creating 63% 감소 Eliminating 37%	
	주요 분석: 직장 내 글로벌 AI 사용	직장 내 AI 사용과 신뢰	직장 내 AI 사용률 54% 직장 내 AI 신뢰도 46%	
직장 내 AI 사용 지원		AI 전략 및 문화 51% AI 리터러시 지원 48% 책임있는 AI 거버넌스 46%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미국 대중과 전문가의 견해 US Public and Expert Views on AI's Societal Impact	주요 분석: AI 컴패니언에 대한 견해	AI 컴패니언* 사용 의향 * AI Companion 정서교감형 AI	67% 수준 기대 ※ Extremely Excited (7%) Excited (19%) Somewhat excited (41%) Not that excited (19%) Not excited at all (7%) Don't know (7%)	Ipsos, Google
AI 신뢰, 투명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n AI Trust, Transparency, and Regulation	기관에 대한 글로벌 신뢰	정부의 AI 규제 신뢰도	공동 23위 (46%)	Ipsos
		글로벌 AI 규제 거버넌스별 신뢰도	한국인 대상 조사에서, -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55% -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58% - EU에 대한 신뢰 53% -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21%	Pew Research
		AI 혁신과 규제 우선순위 인식	혁신 선호도 2위 ※ 혁신 선호도 70% / 규제 선호도 30%	Ipsos, Google

02

분야별로 살펴본 우리나라 AI 역량과 과제

※ 'AI Index 2026' 외 Stanford HAI가 별도로 제공하는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작성

1 연구·개발

□ 주목할 만한 AI 모델 (Notable AI Model)

-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2025년 미국이 59개로 1위, 중국이 35개로 2위이며 한국은 8개로 3위를 달성 ※ Figure 1.1.1, p.16 / Epoch AI
- 주목할 만한 모델 생산이 여전히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규 모델 출시 수는 2025년에 들어 각 지역별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
- 한국에 이어 캐나다,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및 영국이 각 1개 출시

[표1] 2025년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미국 (59개)	중국 (35개)	한국 (8개)	캐나다,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영국 각 1개

□ 데이터센터 (Data Centers)

- (HBM 글로벌 제조사) HBM 주요 제조사로서 SK하이닉스(한국), 삼성전자(한국) 및 마이크론(미국)의 3사가 주목받음 ※ p.31
-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은 칩을 설계(design)할 뿐 직접 제조하지 않음. 설계는 전문 반도체 파운드리인 대만 TSMC 및 삼성전자에 제공
- (데이터센터 분포) 한국은 43개로 32위 ※ Figure 1.3.1, p.32 / Cloudscene
- 2025년 미국이 5,427개로 1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수치임
- 전 세계 데이터센터 인프라 대부분이 소수 국가에 위치해 있는 한편, 데이터센터 수가 시설 규모, 컴퓨팅 용량, 활용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표2] 2025년 국가별 데이터센터 분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5,427개	독일 529개	영국 523개	중국 449개	캐나다 337개
6위	7위	8위	9위	10위
프랑스 322개	호주 314개	네덜란드 298개	러시아 251개	일본 222개

※ 자료 출처에는 43개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Cloudscene 상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데이터센터는 161개(한국전력 조사, '26년 2월 기준)로 파악됨

□ 특허 (Patents)

○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10만 명)) 2024년 한국은 14.31건으로 1위

※ Figure 1.7.4, p.57 / AI Index, 2026

- 전 세계 AI 특허 등록 건수는 2010년 3,866건에서 2024년 131,121건으로 증가,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글로벌 총량의 74.2%, 미국은 12.1%를 점유함
- 한편, 10만 명 기준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로는 한국이 14.31건으로 1위인데, 2022년부터 해당 지표에서 매년 1위를 달성하고 있음

[표3] 2024년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10만 명)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한국 14.31건	룩셈부르크 12.25건	중국 6.95건	미국 4.68건	일본 4.30건
6위	7위	8위	9위	10위
싱가포르 1.31건	독일 1.30건	스웨덴 0.70건	핀란드 0.67건	프랑스 0.62건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영국 0.60건	호주 0.45건	그리스 0.35건	덴마크 0.32건	스위스 0.21건

[표4] 참고. 2022~2024년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10만 명) 순위

국가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1위	한국	10.26건	한국	17.27건	한국	14.31건
2위	룩셈부르크	8.73건	룩셈부르크	15.31건	룩셈부르크	12.25건
3위	미국	4.23건	중국	6.08건	중국	6.95건
4위	일본	2.53건	미국	5.20건	미국	4.68건
5위	중국	2.51건	일본	4.58건	일본	4.30건
6위	싱가포르	2.06건	독일	1.22건	싱가포르	1.31건
7위	호주	1.91건	싱가포르	0.98건	독일	1.30건
8위	캐나다	1.25건	핀란드	0.97건	스웨덴	0.70건
9위	독일	0.66건	스웨덴	0.74건	핀란드	0.67건
10위	덴마크	0.56건	영국	0.52건	프랑스	0.62건
11위	핀란드	0.56건	덴마크	0.47건	영국	0.60건
12위	영국	0.42건	프랑스	0.43건	호주	0.45건
13위	뉴질랜드	0.33건	네덜란드	0.40건	그리스	0.35건
14위	프랑스	0.33건	호주	0.38건	덴마크	0.32건
15위	리투아니아	0.28건	그리스	0.27건	스위스	0.21건

※ 출처 : 2024~2026 AI Index (Stanford HAI)

- (AI 특허 전방인용²⁾ 점유율) 한국은 4.79%로 4위 ※ Figure 1.7.5, p.59 / AI Index, 2026
 - 미국이 전체 AI 특허 인용의 51.9%를 차지하는데, 글로벌 AI 특허 수 점유율이 12.1%인 것과는 대비되는 후속 영향력(downstream influence)을 보임
 - 한편, 중국은 글로벌 AI 특허 수의 압도적 점유율 (74.2%) 에도 불구하고, 인용 점유율은 29.81%로 2위

[표5] 2010~2024년 AI 특허 전방인용 점유율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51.91%	중국 29.81%	일본 6.86%	한국 4.79%	유럽 4.17%

- (AI 특허 지식확산³⁾ 속도) 한국은 미인용 잔존확률 0.42로 4위
 - ※ Figure 1.7.6, p.60 / AI Index, 2026
 - AI 특허 대부분 2~3년 내 인용되며, 비교적 빠른 확산 양상 (fast diffusion)을 보임
 - 미국의 AI 특허는 가장 빠르게 인용됨. 일본의 경우 초기 인용 속도가 빠르나 그 영향의 범위가 좁고, 중국과 한국의 특허는 초기 인용이 더디지만 약 6년 이후에는 인용 확산이 점차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6] AI 특허 지식확산 속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0.19	일본 0.32	유럽 0.35	한국 0.42	중국 0.44

※ 값이 작을수록 인용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류됨

2) 전방인용(Forward Citations)이란, 한 발명이 이후의 연구에 얼마나 자주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proxy for influence)

3) 특허인용지연(Patent Citation Lag)이란, 특허가 공개된 시점부터 첫 인용되기까지 시간으로 정의되며, 특정 분야 내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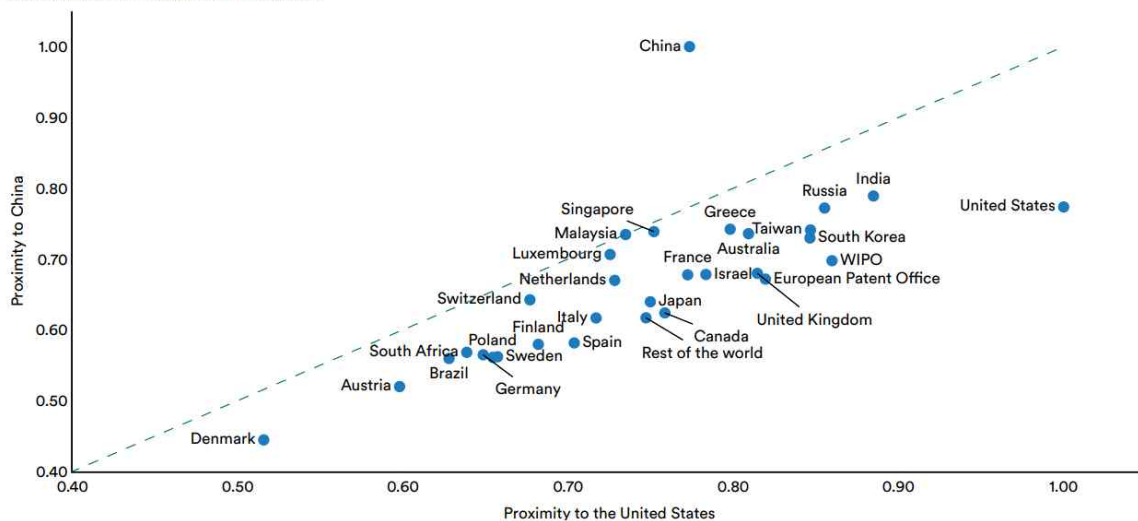
○ (미·중 대비 AI 특허 기술적 근접도) 한국은 산점도 중간 위치(X축 0.85, Y축 0.73)에 분포

※ Figure 1.7.7, p.61 / AI Index, 2026

- AI 특허의 기술적 근접도⁴⁾에서 대부분 국가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임
- 한국의 경우, 산점도 중간에 위치(X축 미국 0.85, Y축 중국 0.73)해 있으며, AI 특허를 통해 살펴본 기술적 유사성이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깝다고 해석됨

[그림1] 미·중 대비 AI 특허 기술적 근접도 산점도

AI patent portfolios' technological proximity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2010-24
Source: AI Index, 2026 | Chart: 2026 AI Index report



※ AI Index 2026에서 발췌

4) 기술적 근접성(Technological Proximity)은 국가들이 AI 혁신이 서로 비슷한 유형으로 수렴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경로를 추구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Bar et al.(2012) 방법론에 따라 0(유사성 없음)~1(완전 동일) 척도로 평가됨. 예를 들어, X축(미국) 값이 1에 가까울수록 AI 특허를 통해 살펴본 기술적 근접도가 미국에 가깝다고 해석

□ AI 저자 및 발명자 (AI Authors and Inventors)

※ 1장(연구 개발) 'AI 저자 및 발명자' 항목은 Zeki Data 출처로 2026년 AI Index에서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4장(경제) 'AI 인재(talent)' 항목은 LinkedIn 출처임

○ (AI 저자·발명가 수) 한국은 5,960명으로 16위 ※ Figure 1.8.1, p.62 / Zeki Data, 2025

- 2025년 확인된 AI 저자·발명가의 가장 큰 비중이 미국(220,520명)에서 나왔으며, 인도(50,460명) 및 독일(48,520명)이 그 뒤를 이었음
- 영국(34,370명), 캐나다(31,450명), 프랑스(18,820명)가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브라질, 스위스 등과 함께 두 번째 그룹(second tier)을 형성

[표7] 2025년 AI 저자·발명가 수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220,520명	인도 50,460명	독일 48,520명	영국 34,370명	캐나다 31,450명
6위	7위	8위	9위	10위
프랑스 18,820명	호주 14,540명	네덜란드 13,960명	이탈리아 13,230명	브라질 11,100명

○ (인구 대비 AI 저자·발명가 수(10만 명)) 한국 순위 미포함

※ Figure 1.8.2, p.62 / Zeki Data, 2025

- 2025년 확인된 인구 대비 AI 저자·발명가 수는 스위스가 1위(110.45명)이며, 한국은 순위에 미포함됨

[표8] 2025년 인구 대비 AI 저자·발명가 수(10만 명)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스위스 110.45명	싱가포르 109.51명	스웨덴 80.63명	핀란드 77.61명	네덜란드 77.61명
6위	7위	8위	9위	10위
캐나다 76.16명	덴마크 65.25명	미국 64.84명	독일 58.10명	호주 53.43명

○ (AI 저자·발명가 학력) 한국의 AI 저자·발명가 학력에서 박사(PhD) 비율은 42.50%로 4위 (석사 31.76%, 학사 9.60%, 기타 16.00%) ※ Figure 1.8.3, p.64 / Zeki Data, 2025

- 영국(51.13%)과 호주(50.46%)가 박사 학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스위스(43.63%), 한국(42.50%), 미국(41.99%)이 그 뒤를 이음

[표9] 2025년 AI 저자·발명가 학력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영국 51.13%	호주 50.46%	스위스 43.63%	한국 42.50%	미국 41.99%
6위	7위	8위	9위	10위
프랑스 40.65%	스페인 39.14%	덴마크 38.75%	사우디아라비아 38.71%	캐나다 36.56%

- (AI 저자·발명가 성별) 한국의 AI 저자·발명가 남성 비율은 81.44%

※ Figure 1.8.4, p.65 / Zeki Data, 2025

- 일본, 한국, 브라질에서 확인된 AI 인재의 80% 이상이 남성
- 여성 비중이 사우디아라비아(32.28%), 호주(30.27%), 캐나다(29.59%), 이탈리아(29.53%)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21개 국가 모두 성비 균형을 달성하지는 못함
- 2010~2025년 동안 거의 모든 국가에서 AI 저자·발명가의 성별 비율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표10] 2025년 AI 저자·발명가 남자 비율 현황 (21개국)

일본	한국	브라질	스위스	이스라엘
남자 비율 82.50%	남자 비율 81.44%	남자 비율 80.16%	남자 비율 78.45%	남자 비율 78.43%
독일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남자 비율 78.24%	남자 비율 77.83%	남자 비율 77.38%	남자 비율 75.13%	남자 비율 74.92%
UAE	네덜란드	핀란드	싱가포르	영국
남자 비율 73.83%	남자 비율 73.43%	남자 비율 73.23%	남자 비율 73.11%	남자 비율 72.57%
미국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남자 비율 72.35%	남자 비율 71.96%	남자 비율 70.47%	남자 비율 70.41%	남자 비율 69.73%
사우디아라비아	-	-	-	-
남자 비율 67.72%				

- (AI 저자·발명가 전문 분야별 비율) 한국의 AI 인재 비율이 가장 많은 전문 분야는 하드웨어·VLSI·IoT 분야이며,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처리가 그 뒤를 이음

※ Figure 1.8.5, p.66 / Zeki Data, 2025

- 한국은 하드웨어, VLSI, IoT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인재 비중(약 20%)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

※ 한국의 AI 인재가 하드웨어, VLSI, IoT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은 비율임

- 아래 표는 주요 국가의 AI 인재(저자·발명가) 전문 분야별 비율을 나타냄

[표11] 2025년 AI 저자·발명가 전문 분야별 비율

(단위 : %)

전문분야	국가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영국	프랑스
AI 응용(일반·인프라) AI applications (general and infrastructure)		3.8	5.3	6.2	4.6	6.3	6.1
컴퓨터 비전·이미지 처리 Computer vision and image processing		15.0	10.3	12.2	13.6	10.6	12.1
데이터 사이언스·빅데이터 Data science and big data		4.3	5.6	4.0	3.6	4.4	4.4
윤리·사회적 영향 Ethics and social impact		0.7	1.5	1.1	0.9	2.1	1.1
HCI·사용자 인터랙션 HCI and user interaction		5.5	6.7	5.6	7.7	8.2	5.2
하드웨어·VLSI·IoT Hardware, VLSI and IoT		19.9	11.3	14.8	14.0	8.8	11.6
헬스케어·바이오인포매틱스 Healthcare and bio informatics		7.6	13.3	7.9	8.9	14.4	10.1
머신러닝·딥러닝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8.3	8.8	10.3	8.5	8.6	9.6
NLP·음성처리 NLP and speech processing		7.1	6.6	7.7	8.4	7.4	8.1
물리과학·환경 Physical sciences and environment		4.6	4.8	4.1	5.1	5.3	5.0
로보틱스·제어시스템 Robotics and control systems		7.1	6.5	8.4	9.1	6.3	6.4
보안·프라이버시·암호학 Security, privacy, and cryptography		6.1	7.3	8.4	5.9	7.4	6.8
소프트웨어 공학·네트워크 Software engineering and networks		9.9	11.3	8.8	9.4	9.7	12.6
기타 AI 연구 Other AI research		0.2	0.5	0.5	0.3	0.7	0.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국가별 AI 저자·발명가의 전문 분야 비율을 나타냄. 예를 들어 한국의 AI 저자·발명가의 19.9%는 하드웨어·VLSI·IoT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됨

※ 중국의 경우 데이터 확인되지 않음

○ (AI 저자·발명가 이동성) 한국은 순유출 (-1.75) ※ Figure 1.8.6, p.67 / Zeki Data, 2025

- 인재 이동성은 순유입(net flow)으로 측정되며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순유입 국가, 값이 음수일 경우 순유출 국가로 분류됨
 - 미국은 매년 순유입(net positive) 상태를 유지하나, 그 규모가 2022년 324.6* 정점에서 2025년 26.0으로 감소했음
- * AI Index에서는 324.6로 표기되었으나, 데이터(csv) 확인 결과 323.5(2022년 12월)로 추정됨
-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매년 AI 저자·발명가 순유입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 스위스, UAE, 영국, 미국의 5개국으로 나타남
 - 최근 4년 동안 매년 AI 저자·발명가 순유출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싱가포르의 5개국으로 나타남 (다만, 한국의 경우 2022년 이후 순유출 정도가 감소)

[표12] 연도별 AI 저자·발명가 이동성 현황

국가 \ 연도	2010년	2015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한국	-0.50	-13.67	-16.25	-14.92	-8.58	-1.75
호주	-0.44	6.67	2.83	0.00	1.33	-1.75
브라질	-0.50	-12.58	-38.58	-20.42	-7.75	-3.58
캐나다	1.50	-12.92	18.17	19.17	-8.08	-7.08
덴마크	-0.86	2.00	0.42	2.67	1.58	2.08
핀란드	0.60	-2.75	-1.33	-2.42	2.83	-1.08
프랑스	-0.88	-15.25	-16.00	-5.33	-1.17	0.08
독일	-1.00	-9.58	17.42	-2.33	5.25	-2.42
인도	-2.38	-175.42	-328.33	-257.75	-132.67	-16.92
이스라엘	0.00	-3.42	-1.58	-3.50	-3.92	-1.92
이탈리아	-0.67	-28.42	-14.08	-7.58	-1.92	0.00
일본	-3.00	-3.25	-7.33	0.42	-2.33	0.00
네덜란드	-0.29	3.08	9.83	9.50	2.00	-1.83
사우디아라비아	1.00	-0.75	-0.08	2.83	4.00	3.08
싱가포르	0.38	4.17	-6.75	-3.50	-5.00	-2.58
스페인	-0.43	-13.58	-4.42	3.50	6.17	2.58
스웨덴	-1.50	1.17	7.42	-2.50	-0.33	-0.58
스위스	1.00	8.00	20.17	9.17	4.75	0.25
UAE	-	2.92	3.58	7.83	8.75	2.58
영국	1.22	33.92	35.67	20.42	6.17	5.17
미국	6.11	228.83	317.50	246.17	127.75	26.00

※ 21개국 각 연도별 9월(Sep) 데이터로 재구성, 일부 국가의 경우 2025년 9월 데이터가 부재함에 따라, 2025년 기준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사용 (호주 7월, 브라질 8월, 핀란드 8월, 이스라엘 7월, 사우디아라비아 3월, 싱가포르 8월)

2 기술 성능

□ 로봇틱스와 자율 동작 (Robotics and Autonomous Motion)

-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목록에 한국 기업 2곳 포함
※ p.118 / AI Index, 2026
- Rainbow Robotics(레인보우로보틱스, RB-Y1): 휴머노이드 응용을 위해 적용된 산업용 협동 로봇(cobot, collaborative robot) 구성 요소
- LG Electronics(LG전자): 휴머노이드 유사 응용(humanoid-like applications)을 위해 협동 로봇 구성 요소 활용

3 책임 있는 AI

□ 학계에서의 책임 있는 AI (RAI in Academia)

- (주요 AI 학회 책임 있는 AI 논문 게재 수) 한국 57건으로 8위 ※ Figure 3.4.4, p.148 / AI Index, 2026
- 2025년 중국이 '책임있는 AI(RAI)' 논문 채택 1위 (812편). 이는 미국 394편의 두 배 이상이며, 싱가포르(112편), 영국(103편), 홍콩(98편)이 상위 5개국으로 분류
- 2024년에는 미국 788편으로 중국 322편을 앞섰으나 1년 만에 역전. 2019~2025년 누적 기준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1위 유지

[표13] 2025년 주요 AI 학회 책임있는 AI 논문 게재 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중국 812편	미국 394편	싱가포르 112편	영국 103편	홍콩 98편
6위	7위	8위	9위	10위
호주 84편	독일 68편	한국 57편	캐나다 54편	이탈리아 29편

- '주요 AI 학회(select AI conferences)'는 'AAAI, AIES, FAccT, ICML, ICLR, NeurIPS'가 기준임
- 논문 집계 키워드는 네 가지는 '공정성 및 편향',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 Fairness and bias, Privacy and data governance, Security,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 책임있는 AI 정책 형성 (RAI Policymaking)

-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 현황) 한국은 당해 연도 기준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 8개 중 6개에 참여하였으나, 후속 논의에 지속 참여하고 있음

※ Figure 3.5.2, p.152 / Governing AI for Humanity, UN, 2025; AI Action Summit, 2025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5개국만이 2019~2025년 모든 주요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8개)를 일관되게 참여

[표14] 한국의 주요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미참여 현황

구분	내용
한국 참여 (6)	▲OECD AI Principles(2019), ▲G20 AI Principles(2019), ▲GPAI Ministerial Declaration(2022), ▲Bletchley Declaration(2023), ▲Seoul Ministerial Statement(2024), ▲AI Action Summit Statement(2025),
한국 미참여 (2) ※ 당해 연도 기준	▲CoE drafters(2022), ▲G7 Hiroshima AI Process(2023)

- 단, CoE drafters(2022)는 유럽평의회 AI 협약 초안 작성 참여국을 의미하며, 유럽평의회 회원국을 중심으로 AI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미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초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논의체

※ 유럽평의회 46개 회원국과 함께 캐나다, 일본, 멕시코, 교황청, 미국 등 참관국과 EU, 호주,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페루, 우루과이 등 일부 비회원국이 참여하였음

-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AI 협약 마련 초기 단계 참여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는 유럽평의회 AI 협약의 후속 논의기구인 ‘신기술운영위원회’ 옵저버 가입을 추진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동향 추적 중에 있음

※ [참고] 2026년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 또한, 2023년 G7 Hiroshima AI Process의 경우, 한국이 참여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협의체의 후속으로 출범한 ‘프렌즈 그룹(2024년 5월)’에 참여하였음

* Hiroshima AI Process Friends Group (2024년 5월)

□ 공정성과 편향 (Fairness and Bias)

- (한국어 특화 기반모델·벤치마크 개발 현황) 한국어 특화 사례 4건 — KoBEST(2022), HAE-RAE(2023), Polyglot-Ko, HyperCLOVA X ※ p.158
 - 언어·문화 특화 기반 모델 및 벤치마크 분야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명시

□ 보안과 안전성 (Security and Safety)

- (AI 안전연구소(AISI) 설립·운영 현황) 한국은 개발 중(in development) 단계로 분류
※ p.165 / All Tech is Human
 - (운영 중; operational)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프랑스*
 - * 프랑스 AI안전연구소는 2025년 1월 말에 설립되었는데, 출범 초기에는 기존 4개 기관이 가상으로 연결하여 운영함
 - ※ 정의된 리더십 체계, 자원 및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미 기능을 수행 중인 기관을 의미
 - (개발 중; in development) 캐나다, 한국, 독일*, 브라질
 - * 독일은 2025년 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에 관한 계획이 불확실했으나, 2026년 6월 8일 AI안전연구소 설립이 결정
 - ※ 공식적으로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기획 단계 또는 초기 이행 단계에 있는 기관을 의미
 - (네트워크 회원) 케냐, 호주
 - ※ 국제 AI 안전 네트워크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전담 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국가들을 의미
 - 위 분류는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였음. 이러한 시차를 고려했을 때, 2026년 현재 한국은 ‘운영 중’ 단계로 분류될 수 있음

4 경제

□ 투자와 인프라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 (민간 AI 투자액) 한국은 2025년 17.8억 달러로 12위 ※ Figure 4.2.8, p.182 / Quid, 2025
 - 민간 AI 투자는 여전히 소수 국가에 집중. 미국은 2025년 2,858.8억 달러로 1위인데, 2위 중국(124.1억 달러) 대비 23.1배임. 3위는 영국으로 59.0억 달러
 - 한편, 미국 전체 민간 AI 투자 중 절반 이상이 생성형 AI 관련(1,636억 달러)이며, 2024년 이후 미국 민간 AI 투자는 160.2% 증가 (중국 32.2% 증가, 유럽 7.2% 증가)

[표15] 2025년 국가별 민간 AI 투자액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2,858.8억 달러	중국 124.1억 달러	영국 59.0억 달러	프랑스 43.6억 달러	캐나다 42.8억 달러
6위	7위	8위	9위	10위
인도 40.9억 달러	독일 38.9억 달러	이스라엘 35.8억 달러	호주 25.2억 달러	사우디 20.3억 달러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싱가포르 18.2억 달러	한국 17.8억 달러	벨기에 12.0억 달러	일본 11.1억 달러	스웨덴 9.7억 달러

- (민간 AI 투자액 누계) 한국은 2013~2025년 누계 107.5억 달러로 9위

※ Figure 4.2.12, p.184 / Quid, 2025

[표16] 2013~2025년 국가별 민간 AI 투자액 누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7,572.7억 달러	중국 1,318.3억 달러	영국 340.7억 달러	캐나다 195.9억 달러	이스라엘 185.4억 달러
6위	7위	8위	9위	10위
독일 171.6억 달러	프랑스 155.7억 달러	인도 153.9억 달러	한국 107.5억 달러	싱가포르 90.9억 달러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스웨덴 82.4억 달러	일본 70.0억 달러	호주 65.0억 달러	스위스 47.3억 달러	UAE 42.4억 달러

- (신규 투자유치 AI 기업 수) 한국은 2025년 59개로 9위 ※ Figure 4.2.9, p.182 / Quid, 2025
 - 2025년 미국 1,953개로 1위. 영국 172개, 중국 161개, 인도 108개 순

[표17] 2025년 신규 투자유치 AI 기업 수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1,953개	영국 172개	중국 161개	인도 108개	독일 92개
6위	7위	8위	9위	10위
프랑스 84개	캐나다 79개	이스라엘 64개	한국 59개	일본 56개
11위	공동 12위		14위	15위
싱가포르 49개	이탈리아 및 호주 38개		스위스 34개	스페인 33개

- (신규 투자유치 AI 기업 누계) 한국은 2013~2025년 누계 329개로 10위
 - ※ Figure 4.2.13, p.184 / Quid, 2025

[표18] 2013~2025년 신규 투자유치 AI 기업 수 누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8,909개	중국 1,766개	영국 1,057개	캐나다 560개	이스라엘 556개
6위	7위	8위	9위	10위
프랑스 552개	인도 542개	독일 486개	일본 444개	한국 329개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싱가포르 288개	호주 216개	스위스 188개	스페인 150개	네덜란드 141개

□ 기업의 AI 도입 (Corporate AI Adoption)

○ (상위 30개국 AI 확산률) 한국은 2025년 상반기 25.9%에서 하반기 30.7%로 상승

※ Figure 4.3.12, p.200 / Microsoft AI Economy Institute, 2025

-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 상위 30개 경제권 대부분에서 AI 도입 증가

※ 단, AI 확산률 (AI diffusion) 값의 경우, 인구 수준을 고려한 값임 (with a population-level adoption rate)

- 한국은 상반기 25.90%(25위)에서 하반기 30.70%(18위)로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 미국은 AI 투자, 모델 개발의 선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26.30%(23위)에서 28.30%(24위)로 순위는 하락

[표19] 2025년 상·하반기 국가별 기업의 AI 도입률 (인구 수준 고려)

국가	연도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1위		UAE	59.40%	UAE	64.00%
2위		싱가포르	58.60%	싱가포르	60.90%
3위		노르웨이	45.30%	노르웨이	46.40%
4위		아일랜드	41.70%	아일랜드	44.60%
5위		프랑스	40.90%	프랑스	44.00%
6위		스페인	39.70%	스페인	41.80%
7위		뉴질랜드	37.60%	뉴질랜드	40.50%
8위		영국	36.40%	네덜란드	38.90%
9위		네덜란드	36.30%	영국	38.90%
10위		카타르	35.70%	카타르	38.30%
11위		호주	34.50%	호주	36.90%
12위		이스라엘	33.90%	이스라엘	36.10%
18위		헝가리	27.90%	한국 (+7위)	30.70% (+4.80%p)
23위		미국	26.30%	대만	28.40%
24위		체코	26.00%	미국	28.30%
25위		한국	25.90%	체코	27.80%

□ 일자리 (Jobs)

- (전체 채용 증가율과 AI 채용 증가율 비교) 한국의 AI 채용률은 전체 채용률 대비 상대적으로 9.93% 더 빠르게 증가

※ Figure 4.4.16, p.213 / LinkedIn, 2025

[표20] 국가별 2025년 전체 채용 증가율 대비 AI 채용 증가율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9.93%	8.97%	6.90%	10.18%	9.06%

- (AI 인재 집중도) 한국은 1.05%로 11위 ※ Figure 4.4.21, p.214 / LinkedIn, 2025

- 링크드인 사용자가 프로필에 AI를 반영하거나 AI 분야에 근무할 경우 AI 인재로 집계됨
- 2025년 링크드인 회원 중 AI 인재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2.10%)이며, 싱가포르(1.82%), 룩셈부르크(1.60%) 순서이며 이스라엘은 2023년 이후 매년 1위
- 2023년 한국이 3위(0.79%)를 차지했으나, 2024~2025년 기간 동안 1~3위는 매년 이스라엘,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순서이며 미국·중국·영국 등 일부 AI 강국들은 순위권에 나타나지 않았음

[표21] 2023~2025년 AI 인재 집중도 순위

순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1위	이스라엘	1.13%	이스라엘	1.98%	이스라엘	2.10%
2위	싱가포르	0.88%	싱가포르	1.64%	싱가포르	1.82%
3위	한국	0.79%	룩셈부르크	1.44%	룩셈부르크	1.60%
4위	룩셈부르크	0.74%	에스토니아	1.17%	아일랜드	1.31%
5위	핀란드	0.71%	스위스	1.16%	스위스	1.25%
6위	독일	0.69%	핀란드	1.13%	핀란드	1.23%
7위	스위스	0.68%	아일랜드	1.11%	에스토니아	1.15%
8위	네덜란드	0.61%	독일	1.09%	독일	1.15%
9위	스웨덴	0.56%	네덜란드	1.07%	리투아니아	1.10%
10위	아일랜드	0.55%	한국	1.06%	네덜란드	1.05%
11위	프랑스	0.49%	리투아니아	1.06%	한국	1.05%
12위	캐나다	0.45%	폴란드	0.94%	인도	1.01%
13위	덴마크	0.42%	캐나다	0.93%	캐나다	1.01%
14위	인도	0.42%	헝가리	0.92%	폴란드	1.00%
15위	키프로스	0.40%	스웨덴	0.90%	키프로스	0.95%

※ 출처 : 2024~2026 AI Index (Stanford HAI)

- (AI 인재 순이동) 한국은 2025년 순유출 국가로 분류 (-0.35, LinkedIn 회원 1만 명당)

※ Figure 4.4.24, p.216 / LinkedIn, 2025

- AI 분야 전문 인력은 각국의 산업 수요, 정책적 유인,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중요 지표 중 하나임
- 2025년 기준 룩셈부르크가 LinkedIn 회원 1만 명당 7.76명*의 AI 인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가 AI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흐름을 반영한다고 해석됨

* AI Index 2026 본문에는 5.23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데이터 셋과 OECD.AI의 Live data에서는 2025년 룩셈부르크 값이 7.76 값으로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의 경우 2022년부터 AI 인재 순이동(Net AI talent migration)이 순유출로 나타남

[표22] 2021~2025년 한국 AI 인재 순이동 순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한국	28위 (0.12)	32위 (-0.03)	43위 (-0.44)	33위 (-0.15)	43위 (-0.35)

[표23] 2021~2025년 국가별 AI 인재 순이동 순위

연도 순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위	룩셈부르크 5.54	룩셈부르크 9.37	룩셈부르크 6.50	룩셈부르크 5.23	룩셈부르크 7.76
2위	에스토니아 4.02	키프로스 9.10	키프로스 5.25	UAE 4.40	UAE 6.52
3위	스위스 2.62	에스토니아 3.29	UAE 3.56	호주 1.79	키프로스 2.93
4위	키프로스 1.76	스위스 3.26	스위스 2.79	사우디아라비아 1.77	아일랜드 2.48
5위	캐나다 1.72	UAE 2.86	캐나다 2.53	스위스 1.72	스위스 2.45
6위	독일 1.70	캐나다 2.56	아일랜드 1.76	싱가포르 1.36	사우디아라비아 2.02
7위	오스트리아 1.43	독일 2.36	독일 1.76	캐나다 1.23	호주 1.77
8위	UAE 1.29	싱가포르 2.20	호주 1.75	미국 1.22	홍콩 1.76
9위	리투아니아 1.14	영국 1.92	오스트리아 1.65	홍콩 1.14	오스트리아 1.50
10위	네덜란드 1.05	아일랜드 1.87	싱가포르 1.42	영국 1.04	독일 1.09
11위	영국 0.98	리투아니아 1.82	영국 1.34	오스트리아 0.90	미국 0.92
12위	노르웨이 0.89	네덜란드 1.70	핀란드 1.32	키프로스 0.62	싱가포르 0.90
13위	핀란드 0.87	오스트리아 1.38	네덜란드 1.31	덴마크 0.45	덴마크 0.83
14위	스웨덴 0.74	호주 1.36	미국 1.07	스페인 0.23	아이슬란드 0.75
15위	덴마크 0.70	핀란드 1.34	사우디아라비아 1.06	독일 0.17	리투아니아 0.74

※ 별도로 제공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표임

□ 로봇 도입 (Robot Deployments)

○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 한국은 2024년 30,600대로 4위

※ Figure 4.5.4, p.228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25

- 2024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중국 1위 (295,000대), 일본 2위 (44,500대), 미국 3위 (34,200대), 한국 4위 (30,600대)로 나타나며, 2021~2024년 기간 동안 1~4위 국가는 매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 총량은 542,000대인데, 중국이 54.4%의 점유율을 차지함. (한국은 5.6%)

[표24] 2021~2024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 순위

(단위 : 천 대)

순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위	중국	268.2	중국	290.3	중국	276.3	중국	295
2위	일본	47.2	일본	50.4	일본	46.1	일본	44.5
3위	미국	35	미국	39.5	미국	37.6	미국	34.2
4위	한국	31.1	한국	31.7	한국	31.4	한국	30.6
5위	독일	23.8	독일	25.6	독일	28.4	독일	27
6위	이탈리아	14.1	이탈리아	11.5	이탈리아	10.4	인도	9.1
7위	대만	9.6	대만	7.8	인도	8.5	이탈리아	8.8
8위	프랑스	5.9	프랑스	7.4	프랑스	6.4	대만	5.8
9위	멕시코	5.4	멕시코	6	멕시코	5.8	멕시코	5.6
10위	인도	4.9	싱가포르	5.9	스페인	5.1	스페인	5.1
11위	캐나다	4.3	인도	5.4	대만	4.4		
12위	태국	3.9	스페인	3.8	튀르키예	4.4		
13위	싱가포르	3.5	튀르키예	3.7	캐나다	4.3		
14위	스페인	3.4	태국	3.3	영국	3.8		
15위	폴란드	3.3	캐나다	3.2	태국	3.6		

※ 출처 : 2023~2026 AI Index (Stanford HAI)

5 의학

□ 환자 참여 (Patient Engagement)

- (의료 AI 환자 인식 연구 출판물 수) 한국은 2020~2025년 누계 5건으로 공동 9위

※ Figure 6.3.5, p.283 / RAISE Health, 2026

- 전체 의료 분야 AI 환자 관점 논문 수는 2020~2025년 사이 10배(tenfold) 증가
- 문헌 전반에서 '조건부 수용(conditional acceptance)'이 주된 관점.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은 AI가 자율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더 선호
- 환자의 AI에 대한 신뢰는 기술 자체 평가보다 의사의 중개(clinician-mediated)를 통해 형성되며, 의료 제공자의 지지(provider endorsement)가 환자의 AI 수용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

[표25] 2020~2025년 의료 AI 환자 인식 연구 출판물 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62건	영국 27건	독일 24건	캐나다 13건	중국 9건
6위	공동 7위	공동 9위		공동 12위
사우디아라비아 7건	호주, 스위스 각 6건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각 5건		프랑스, 노르웨이 각 4건

6 교육

□ 고등교육 단계의 컴퓨터과학 및 AI 교육 (Postsecondary CS and AI Education)

- (ICT 단기과정 신규 졸업자 수) 한국은 2022년 9위(6,983명) → 2023년 7위(6,685명)

※ Figure 7.2.9, p.298 / OECD, 2025

- 미국은 ICT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유지.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모든 수준에서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졸업생을 배출

[표26] 2023년 ICT 단기과정 신규 졸업자 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39,213명	스페인 20,932명	터키 20,884명	캐나다 15,885명	콜롬비아 14,867명
6위	7위	8위	9위	10위
영국 10,839명	한국 6,685명	프랑스 5,835명	호주 5,322명	멕시코 4,536명

- (ICT 학사 신규 졸업자 수) 한국은 2022년 6위(19,603명) → 2023년 6위(19,591명)

※ Figure 7.2.10, p.299 / OECD, 2025

- 학사 수준에서 미국이 글로벌 1위. 브라질과 터키가 2022년 대비 2023년에 각 30% 증가

[표27] 2023년 ICT 학사 신규 졸업자 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122,814명	브라질 80,316명	멕시코 33,861명	독일 21,504명	영국 20,703명
6위	7위	8위	9위	10위
한국 19,591명	페루 15,171명	폴란드 14,688명	호주 14,363명	캐나다 13,590명

- (ICT 석사 신규 졸업자 수) 한국은 2022년 12위(2,910명) → 2023년 12위(3,261명)

※ Figure 7.2.11, p.299 / OECD, 2025

- 석사 수준에서는 미국이 +55% 증가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 단, 미국 석사 졸업생 다수는 미국 거주자 아님에 유의

[표28] 2023년 ICT 석사 신규 졸업자 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86,301명	영국 27,624명	프랑스 15,233명	독일 12,650명	호주 8,895명
6위	7위	8위	9위	10위
폴란드 4,571명	콜롬비아 4,010명	아일랜드 3,906명	멕시코 3,758명	스페인 3,588명

- (ICT 박사 신규 졸업자 수) 한국은 2022년 5위(617명) → 2023년 5위(585명)

※ Figure 7.2.12, p.300 / OECD, 2025

- 박사 수준에서는 멕시코가 +76% 증가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

[표29] 2023년 ICT 박사 신규 졸업자 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2,874명	영국 1,218명	독일 1,004명	프랑스 830명	한국 585명
6위	7위	8위	9위	10위
호주 483명	브라질 419명	캐나다 324명	스페인 289명	멕시코 254명

- (ICT 고등교육 졸업자의 여성 비율) 한국의 경우 박사의 19%, 석사의 26%, 학사의 32%,

단기과정의 24%가 여성 비율로 확인됨 ※ Figure 7.2.13, p.301 / OECD, 2025

- 여성 비율의 평균은 박사(PhD) 29%, 석사(Master's degree) 29%, 학사(Bachelor's degree) 22%, 준학사(Associate's degree) 20%

- ICT 고등교육 졸업자의 성별 비율은 매년 유사하여 15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제1장의 AI 저자·발명자 성비 패턴과 유사

[표30] 2023년 ICT 고등교육 졸업자의 여성 비율 (일부 국가)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준학사(단기과정)
글로벌 평균	29%	29%	22%	20%
한국	19%	26%	32%	24%
미국	27%	35%	24%	25%
영국	26%	33%	18%	26%

○ (대학생 생성형 AI 학업 활용률 (2023 vs 2025)) 한국 2023년 23% → 2025년 84%

※ Figure 7.2.16, p.303 / Chegg Global Student Survey

- 한국 대학생들의 생성형 AI 학업 활용률이 2023년 23%에서 2025년 84%로 상승했는데, 상승폭(+61%p)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으로 확인
- 2025년 15개국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Chegg Global Student Survey)에 따르면, 학습 지원 목적 생성형 AI 사용 경험은 80%인데 이는 2023년(40%)의 두 배 수준
- 한편 AI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문적 부정행위 우려가 45%, 콘텐츠 정확성이 38%, 학교 정책이 33%로 나타남

[표31] 2023~2025년 국가별 대학생 생성형 AI 학업 활용률 변화

순위	2023년		2025년	
1위	케냐	63%	인도네시아	95%
2위	사우디아라비아	62%	말레이시아	90%
3위	스페인	62%	사우디아라비아	89%
4위	캐나다	54%	스페인	87%
5위	인도네시아	53%	브라질	84%
6위	브라질	52%	한국 (+7위)	84% (+61%p)
7위	말레이시아	49%	인도	84%
8위	인도	44%	케냐	83%
9위	멕시코	33%	멕시코	83%
10위	남아프리카공화국	33%	남아프리카공화국	81%
11위	호주	33%	캐나다	79%
12위	튀르키예	30%	호주	77%
13위	한국	23%	튀르키예	68%
14위	미국	20%	미국	67%
15위	영국	19%	영국	67%

□ K-12* 컴퓨터과학 및 AI 교육 (K-12 CS and AI Education)

* 유치원(Kindergarten)부터 12학년(한국 고3에 해당)까지의 초·중등 정규교육 단계를 통칭하는 미국·캐나다 교육용어

- (초등 AI 교과서 도입·철회 사례) 한국은 2025년 3월 초등학교 AI 교과서 도입 후 학부모와 교사 반발로 몇 달 만에 정책 철회하였다고 언급 ※ p.318 / AI Index, 2026

※ "..., South Korea launched AI textbooks in primary schools in March 2025, only to reverse course a few months later due to parent and teacher push back. (AI Index 2026, p.318)

- 그리스의 경우, 정부가 OpenAI와 협력해 중등 교사에게 ChatGPT 활용 교육을 제공했으며, 에스토니아의 경우 'AI Leap 2025'로 학생 2만 명과 교사 3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음
- 한편 중국의 경우, 2025년 5월에 발표된 지침에 따라 베이징, 광둥, 항저우에서 2025~26 학년도부터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UAE 역시 모든 학년의 AI 교육을 의무화
- (컴퓨터 과학(CS) 정규교육 도입 현황) 한국은 의무 교육 상태로 분류
※ Figure 7.3.19, p.318 / AI Index, 2025; Raspberry Pi Computing Education Research Centre, 2024
- 2025년 기준 전 세계 약 93% 국가에서 컴퓨터 과학(CS) 교육을 실시. 30% 국가는 초등 또는 중등 교육에서 CS 교육 의무화. 63%는 일부 학교에서 제공하나 의무는 아님
- 한국은 의무 교육 상태로 분류 (CS mandatory in primary and/or secondary school)

□ AI 역량 습득 (AI Skill Acquisition)

- (AI 스킬 확산 지수) 한국 AI 리터러시 5.64(39위), AI 엔지니어링 16.78(44위)
※ Figure 7.4.3, p.321 / LinkedIn, 2025
- LinkedIn의 AI 스킬 확산 지수는 각국에서 AI 기술 채택이 자국의 기존 수준 대비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AI 기술의 단순 보급 정도뿐 아니라, 활용되는 AI 기술의 다양성까지 함께 고려함
- AI 역량은 크게 AI 리터러시 역량과 AI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구분되는데, AI 리터러시 역량은 AI 기반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AI 엔지니어링 역량은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기술적 능력을 의미

- 최근 조사 대상 국가 전반에서 AI 리터러시와 AI 엔지니어링 역량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 다만, AI 리터러시 역량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AI 엔지니어링 역량의 확산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
- 미국과 인도는 AI 리터러시 역량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반면 UAE,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AI 엔지니어링 역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나타남

※ 미국에서는 AI 프롬프팅과 Microsoft Copilot Studio가 가장 빠르게 확산된 AI 리터러시 역량으로 제시됨

※ 미국의 AI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 AI 생산성, AI 전략 관련 역량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32] 2025년 AI 스킬 확산 지수 순위

연도	AI 리터러시 역량 점수		AI 엔지니어링 역량 점수	
순위				
1위	미국	458.07	UAE	153.74
2위	인도	381.99	칠레	99.84
3위	브라질	167.31	남아프리카공화국	97.72
4위	독일	153.20	아르헨티나	96.74
5위	캐나다	142.97	인도네시아	84.67
6위	영국	129.93	홍콩	81.91
7위	스페인	120.68	뉴질랜드	71.31
8위	프랑스	91.73	사우디아라비아	63.60
9위	폴란드	84.41	멕시코	59.71
10위	이탈리아	77.95	싱가포르	58.02
11위	호주	69.98	인도	52.94
12위	멕시코	64.84	브라질	51.22
13위	네덜란드	64.44	아일랜드	49.30
14위	싱가포르	59.93	노르웨이	45.31
15위	UAE	54.41	호주	45.12

7 정책·거버넌스

□ 국가 AI 전략 (National AI Strategies)

- (AI 국가전략 수립 현황) 한국은 2019년부터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 보유
※ Figure 8.2.1, p.331 / Oxford Insights, 2024; AI Index, 2026

□ AI 주권 (AI Sovereignty)

- (엔비디아 및 오픈AI와 AI 인프라 이니셔티브 협력 국가) 한국은 엔비디아 및 오픈AI 인프라 이니셔티브 모두 보유한 국가로 분류 ※ Figure 8.3.2, p.334 / Stanford HAI
- (AI 응용 분야, 자원별 투자 분포) ※ Figure 8.3.5, p.338 / Brookings, 2026
 - 국가별 AI 투자가 제도적 강점 및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분야로 집중되는 추세
 -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거의 모든 AI 응용 분야에서 높은 투자. 대부분 다른 국가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

[표33] AI 응용 분야별 누적 투자 (2014~2025년)

(단위 : 억 달러)

응용분야	국가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농업·환경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14.9	1	1.7	0.4	0.2
비즈니스·기업 서비스 Business and enterprise services		17.3	686.1	83.4	198	30	25.3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Consumer and lifestyle		8.2	118.8	20.1	14.5	6.4	3.3
교육 Education		1.5	39	25.2	7.2	1.8	0.4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2.8	222.7	39.3	43.4	13.3	12
범용 AI 역량 General-purpose AI capabilities		8.9	251.7	56.6	35.8	8.3	8.1
헬스케어·생활과학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109.3	343.4	84.4	40.9	14.5	18.7
산업·에너지 인프라 Industry, energy and infrastructure		2.8	95.3	40.6	11.5	19.6	5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1.2	89	4.8	6.5	1.5	1
공공부문 거버넌스 Public sector and governance		0.4	16.1	1.6	0.7	0.7	0.9
보안·국방 Security and defense		1	35.7	0.8	1.8	0.4	0.6

※ 데이터 출처 확인 결과 2014~2025년 누적 값이며 Quid, Crunchbase 등 데이터가 활용되었음. 위 표에 명시된 응용 분야 외에도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가 확인됨. AI Index 2026에는 일부 분야가 인용되었음

□ AI와 정책 형성 (AI and Policymaking)

- (G20 AI 관련 법률 제정 건수 누계) 한국은 2016~2025년 누계 17건으로 G20 국가 중 2위

※ Figure 8.4.3, p.342 / AI Index, Digital Policy Alert

- 2016년에는 G20 국가에 AI 관련 법률 활동이 없음. 이후 입법 활동이 증가
- 2016~2025년 미국 25건으로 1위, 한국 17건으로 2위

[표34] 2016~2025년 G20 AI 관련 법률 제정 건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25건	한국 17건	프랑스 10건	일본 10건	이탈리아 9건
6위	공동 7위		9위	10위
영국 6건	러시아, 독일 각 5건		브라질 3건	호주 2건

- (AI 관련 법률 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Trust-based Environment)」 제정 언급 ※ p.343 / AI Index, 2026

- “이 법은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AI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포괄적인 정책 및 체계를 수립. 또한 정부 주도의 AI 전략, 조정 및 지원 조치와 산업 혁신과 함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준 및 안전장치 마련의 주요 법적 근거를 제공”이라 언급.

※ This law sets South Korea’s overarching policy and governance framework for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building conditions for trustworthy and ethical AI. It provides the primary statutory basis for government-led AI strategy, coordination, and support measures, and for developing standards and safeguards intended to promote public trust alongside industrial innovation.

8 대중 여론

□ AI에 대한 글로벌 인식과 정서 (Global Sentiment Toward AI)

- (AI 제품·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인식) 한국 응답은 2022년 62% → 2023년 66% → 2024년 66% → 2025년 67% ※ Figure 9.1.2, p.364 / Ipsos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 2022-2025년”

[표35] 2022~2025년 국가별 AI 제품·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가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한국	62%	66%	66%	67%
미국	35%	37%	39%	42%
중국	78%	-	83%	87%
영국	38%	46%	46%	43%
프랑스	31%	37%	41%	41%
독일	37%	42%	47%	49%
일본	42%	40%	48%	48%
싱가포르	53%	64%	66%	73%
인도	71%	65%	60%	67%

-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인식) 한국 응답은 글로벌 평균 대비 이해·기대·체감 변화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 — AI 이해도 70%(글로벌 68%), 향후 3년 일상 변화 예상 80%(글로벌 67%), 기대 69%(글로벌 53%) ※ Figure 9.1.3, 9.1.5, p.366-367 / Ipsos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인식, 2022-2025년”

[표36] 2025년 국가별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문항	글로벌 평균	한국	미국	중국
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잘 이해한다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68%	70%	66%	78%
나는 어떤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I know which types of products and services use artificial intelligence	53%	63%	44%	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지난 3~5년 동안 내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 Products and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profoundly changed my daily life in the past 3-5 years	53%	75%	39%	85%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향후 3~5년 동안 내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Products and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rofoundly change my daily life in the next 3-5 years	67%	80%	57%	89%
나는 인공지능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편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다 I trust artificial intelligence to not discriminate or show bias towards any group of people	55%	52%	37%	77%
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내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신뢰한다 I trust that companies that us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rotect my personal data	48%	39%	33%	72%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나를 기대하게 한다 Products and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ke me excited	53%	69%	38%	84%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Products and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ke me nervous	52%	40%	64%	40%

- (AI와 삶의 개선 인식) 한국 응답(2025) — 우리나라 경제 개선 29%, 노동 시장 개선 14%, 나의 직업 개선 18%, 일 처리 시간 개선 60%, 엔터테인먼트 선택지 51%, 나의 건강 34%, 인터넷상의 허위정보 24% ※ Figure 9.1.6, p.367 / Ipsos

“AI가 나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인식, 2025년”

- AI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응답자는 AI를 개인의 편익과 연관지음. 특히 ‘시간 절감’과 ‘엔터테인먼트’ 응답에서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짐
- 전 세계 응답자의 56%는 AI가 업무, 일상 과업 처리 시간을 줄여줄 것이라고 응답. 중국의 경우, 해당 비율은 78%로 더 높게 나타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60% 상회
- 반면, AI가 자국 경제나 고용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응답이 낮았음. 북미 및 유럽 응답자들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태도
- 종합적으로는 AI의 개인적 편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와 공존

[표37] 2025년 국가별 AI가 나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문항	글로벌 평균	한국	미국	중국
자국의 경제 The economy in my country	36%	29%	28%	75%
고용 시장 The job market	33%	14%	20%	52%
나의 직업 My job	40%	18%	33%	65%
내가 일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The amount of time it takes me to get things done	56%	60%	45%	78%
나의 엔터테인먼트 선택지 (텔레비전/비디오 콘텐츠, 영화, 음악, 도서) My entertainment options (television/video content, movies, music, books)	50%	51%	40%	74%
나의 건강 My health	40%	34%	31%	65%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의 양 The amount of disinformation on the internet	30%	24%	17%	54%

- (개인직업·고용시장에 대한 AI의 긍정적 영향 인식) 한국 응답 — 개인직업 18%, 고용시장 14%
※ Figure 9.1.9, p.369 / Ipsos

“AI가 나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인식, 2025년” - 나의 직업, 고용 시장

-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항목 모두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50% 이하 또는 50% 내외에 머물렀음
-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를 AI가 개인의 일자리와 경제 전반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보임.
- 반면, 북미와 유럽에서는 AI의 고용 영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았고, 전체 고용 시장 보다는 자신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더 크게 기대

[표38] 2025년 국가별 나의 직업과 고용 시장에 대한 AI의 영향 인식 조사 결과

국가	나의 직업에 대한 긍정 영향 기대 My job	국가	고용 시장에 대한 긍정 영향 기대 The job market
중국	65%	중국	52%
인도네시아	62%	대만	51%
대만	60%	페루	50% 50% 이상
인도	55%	인도	48%
말레이시아	54%	인도네시아	47%
페루	51%	말레이시아	45%
남아프리카공화국	50% 50% 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	45%
싱가포르	49%	멕시코	45%
멕시코	47%	튀르키예	45%
콜롬비아	45%	아르헨티나	41%
브라질	44%	브라질	40%
칠레	44%	싱가포르	39%
튀르키예	42%	콜롬비아	39%
글로벌 평균	40%	칠레	35%
아르헨티나	39%	글로벌 평균	33%
프랑스	34%	이탈리아	27%
이탈리아	34%	스위스	25%
아일랜드	33%	스페인	25%
스위스	33%	헝가리	24%
미국	33%	폴란드	24%
헝가리	32%	프랑스	23%
호주	31%	아일랜드	22%
스웨덴	31%	독일	21%
영국	30%	벨기에	21%
스페인	30%	미국	20%
독일	28%	스웨덴	20%
네덜란드	28%	영국	20%
벨기에	27%	일본	20%
폴란드	25%	네덜란드	19%
캐나다	22%	호주	18%
일본	20%	캐나다	15%
한국	18%	한국	14%

○ (AI와 일자리 변화 인식) 한국 응답 — AI 일자리 창출 63% vs 감소 37%

※ Figure 9.1.8, p.368 / Ipsos

“AI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기존 일자리를 없앨 것인지에 대한 글로벌 기대, 2025년”

- 2025년 기준, AI가 전반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음
- 나이지리아, 일본,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한국, 인도에서는 AI가 없애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였고, 해당 국가들의 긍정 응답 비율은 모두 60%를 상회
-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67%, 68% 응답자가 AI가 일자리를 줄이고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응답하여 반대 양상을 보임

[표39] 2025년 국가별 AI와 일자리 변화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국가	신규 일자리 및 새로운 업무 방식 창출 Create new jobs and new ways of working	일자리 축소 및 산업 혼란 Eliminate jobs and disrupt industries
나이지리아	73%	27%
일본	69%	31%
멕시코	64%	36%
UAE	63%	37%
한국	63%	37%
인도	63%	37%
브라질	59%	41%
싱가포르	57%	43%
아르헨티나	50%	50%
글로벌 평균	50% 50% 이상	50%
남아프리카공화국	45%	55%
폴란드	45%	55%
스페인	45%	55%
호주	43%	57%
프랑스	42%	58%
벨기에	42%	58%
아일랜드	41%	59%
이탈리아	41%	59%
독일	39%	61%
영국	38%	62%
캐나다	32%	68%
미국	29%	67%

□ 주요 분석: 직장 내 글로벌 AI 사용 (Highlight: Global AI Use in the Workplace)

○ (직장 내 AI 사용과 신뢰) 한국 응답 — 직장 내 AI 사용률 54%, AI 신뢰도 46%

※ Figure 9.1.10, p.370 / University of Melbourne and KPMG International

“직장 내 AI 사용과 신뢰에 대한 조사, 2025년”

- 전 세계적으로 업무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58% AI를 정기적으로 혹은 반정기적으로 사용하며 53%는 업무 목적으로 AI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음
-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 경제권 국가들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 (80%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국가에서는 업무 목적의 AI 신뢰 수준도 유사하게 높게 나타남
- 반면, 미국, 캐나다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업무 중 AI를 사용하는 응답과 업무 목적의 AI 사용을 신뢰한다는 응답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40] 2025년 국가별 직장 내 AI 사용과 신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가	업무 중 AI 사용 Using AI at work	업무 목적 AI 신뢰 Trust AI at work
인도	91%	81%
중국	88%	73%
나이지리아	85%	81%
아랍에미리트	84%	69%
이집트	84%	79%
사우디아라비아	82%	69%
코스타리카	76%	55%
브라질	75%	60%
남아프리카공화국	74%	64%
튀르키예	69%	62%
노르웨이	67%	61%
스위스	65%	54%
콜롬비아	65%	51%
싱가포르	64%	60%
멕시코	64%	53%
아르헨티나	62%	52%
칠레	58%	50%

국가	업무 중 AI 사용 Using AI at work	업무 목적 AI 신뢰 Trust AI at work
글로벌 평균	58%	53%
폴란드	54%	49%
리투아니아	54%	32%
한국	54%	46%
라트비아	53%	40%
에스토니아	53%	52%
덴마크	53%	51%
미국	52%	48%
루마니아	52%	48%
스페인	50%	53%
슬로베니아	50% 50% 이상	42%
포르투갈	49%	44%
이탈리아	49%	42%
오스트리아	49%	43%
호주	49%	45%
영국	48%	48%
아일랜드	47%	43%
핀란드	47%	33%
이스라엘	46%	57%
스웨덴	44%	39%
일본	44%	31%
프랑스	44%	41%
벨기에	44%	48%
그리스	43%	50%
캐나다	43%	41%
네덜란드	42%	42%
독일	42%	43%
뉴질랜드	41%	39%
헝가리	39%	55%
슬로바키아	35%	39%
체코	33%	39%

※ ‘업무 중 AI 사용 (Using AI at work)’ 응답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 (직장 내 AI 사용 지원) 한국 응답 — AI 전략 및 문화 51%, AI 리터러시 지원 48%, 책임있는 AI 거버넌스 46% ※ Figure 9.1.11, p.371 / University of Melbourne and KPMG International

“직장 내 AI 사용과 신뢰에 대한 조사, 2025년”

※ 조직의 일관성 있는 AI 전략 보유, AI 도입과 활용 지원, 교육을 포함한 AI 리터러시와 책임있는 사용을 지원 하는지, 명확한 정책, 모니터링, 책임성, 데이터 보호와 보안 조치 등 AI 거버넌스 체계 여부를 조사 평가

- 인도,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등 국가에서 조직 차원의 지원 수준이 높게 나타남. 이는 ‘직장 내 AI 사용과 신뢰(업무 목적 AI 사용 신뢰)’ 결과와 유사함.
- 반면 일본, 한국, 포르투갈은 AI 리터러시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나타남. 이들 국가는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음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AI 전략 및 리터러시에 비해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조직 지원 수준이 낮음

[표41] 2025년 국가별 직장 내 AI 사용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국가	AI 리터러시 지원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AI 전략 및 문화
인도	87%	85%	86%
중국	83%	77%	76%
이집트	81%	79%	84%
나이지리아	81%	77%	84%
아랍에미리트	80%	77%	76%
사우디아라비아	79%	77%	76%
튀르키예	75%	69%	79%
남아프리카공화국	73%	75%	72%
싱가포르	72%	70%	72%
브라질	72%	70%	70%
스위스	71%	64%	67%
코스타리카	66%	64%	71%
콜롬비아	65%	59%	65%
멕시코	64%	61%	64%
영국	64%	63%	64%
노르웨이	64%	61%	62%
에스토니아	63%	54%	59%

국가	AI 리터러시 지원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AI 전략 및 문화
아르헨티나	62%	55%	64%
미국	62%	57%	63%
덴마크	62%	63%	61%
이탈리아	62%	64%	60%
칠레	61%	54%	61%
루마니아	60%	61%	54%
폴란드	59%	61%	54%
헝가리	57%	56%	59%
아일랜드	56%	51%	57%
호주	56%	61%	54%
라트비아	56%	47%	47%
캐나다	55%	55%	59%
리투아니아	54%	52%	49%
스페인	53%	52%	51%
스웨덴	53%	53%	51%
벨기에	52%	53%	57%
이스라엘	52%	44%	54%
프랑스	52%	53%	52%
그리스	51%	46%	53%
오스트리아	51%	52%	52%
독일	50%	54%	53%
슬로베니아	50%	45%	46%
네덜란드	49%	50%	48%
체코	49%	48%	47%
핀란드	49%	49%	47%
슬로바키아	49%	49%	47%
한국	48%	46%	51%
뉴질랜드	48%	47%	50%
일본	47%	50%	56%
포르투갈	45%	41%	50%

※ 'AI 리터러시 지원' 응답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미국 대중과 전문가의 견해

(US Public and Expert Views on AI's Societal Impact)

- (AI 컴패니언(정서교감형 AI) 사용 의향) 한국 응답 — 6개 응답 카테고리 분포:
Extremely Excited 7%, Very Excited 19%, Somewhat excited 41%, Not that excited 19%, Not excited at all 7%, Don't know 7% (긍정 합계 약 67%)

※ Figure 9.2.10, p.379 / Ipsos, Google

“AI 컴패니언 사용에 대한 기대감, 2026년”

※ AI 동반자 관계, 즉 AI for companionship은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 이는 AI 기술의 비교적 논쟁적인 활용 영역 중 하나로, 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업무 보조를 넘어 사용자가 AI와 정서적 교류, 대화, 위로, 친밀감 형성 등을 경험하는 형태를 포함

※ 전문가들은 미국 성인의 10%가 2027년까지 AI 동반자를 하루 1회 이상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30년 15%, 2040년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만 일반 대중의 기대치는 전문가 전망보다 낮은 수준으로, 2040년 기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Ipsos-Google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52%는 AI를 동반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정 수준의 기대감을 보임. 특히 나이지리아, 인도, UAE에서는 20%를 넘는 응답자가 “매우 강하게 기대한다”고 응답
-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AI 동반자 사용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36%,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일본은 “매우 강하게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낮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로 글로벌 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을 기록

[표42] 2026년 국가별 AI 컴패니언 사용 기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가	매우 강하게 기대	강하게 기대	다소 기대	그다지 기대하지 않음	전혀 기대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한국	7%	19%	41%	19%	7%	7%
글로벌 평균	10%	16%	26%	19%	18%	10%
나이지리아	29%	36%	17%	10%	5%	3%
인도	27%	32%	24%	10%	4%	3%
UAE	22%	24%	32%	10%	8%	4%
미국	4%	5%	16%	22%	36%	15%
캐나다	5%	9%	19%	22%	34%	12%
일본	2%	9%	31%	26%	14%	18%

□ AI 신뢰, 투명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n AI Trust, Transparency, and Regulation)

○ (정부의 AI 규제 신뢰도) 한국은 46%로 공동 23위 ※ Figure 9.3.1, p.380 / Ipsos

“정부의 AI 규제에 대한 신뢰, 2025년”

- 응답자 54%가 정부가 AI를 책임 있게 규제할 것이라고 신뢰한다고 응답.
- 미국은 해당 항목에서 31%로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보인 반면에 앞서 언급된 AI에 대한 낙관적 인식 및 기대감과 유사하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싱가포르 81%, 인도네시아 76%, 말레이시아 73%, 태국 70%가 정부의 AI 규제 책임성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임

[표43] 2025년 국가별 정부 AI 규제 신뢰도 조사 결과

국가	정부 AI 규제 신뢰 50% 이상	국가	정부 AI 규제 신뢰 50% 미만
싱가포르	81%	벨기에	49%
인도네시아	76%	독일	49%
말레이시아	73%	아일랜드	49%
태국	70%	브라질	48%
멕시코	67%	네덜란드	48%
칠레	67%	튀르키예	48%
콜롬비아	66%	스웨덴	46%
인도	65%	호주	46%
페루	61%	한국	46%
폴란드	61%	프랑스	42%
아르헨티나	61%	캐나다	40%
남아프리카공화국	55%	영국	39%
스페인	55%	헝가리	33%
스위스	55%	일본	32%
글로벌 평균	54%	미국	31%
이탈리아	50%	-	-

- (글로벌 AI 규제 거버넌스별 신뢰도) 한국 응답 — 자국 정부 55%, 미국 정부 58%, EU 53%, 중국 정부 21% ※ Figure 9.3.2, p.381 / Pew Research

“EU, 미국, 중국, 자국의 AI 규제에 대한 신뢰, 2025년”

- 응답자들은 AI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주체로 대체로 자국 정부를 가장 신뢰하는 경향. 다만, 외국 정부나 외부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신뢰는 국가별로 혼재된 양상
- 조사 대상 25개국에서 응답자의 중위값 기준 53%는 유럽연합(EU)이 AI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신뢰 37%, 중국에 대한 신뢰 27%보다 높은 수준

[표44] 2025년 AI 규제 거버넌스별 신뢰도 조사 결과

국가	응답	자국을 신뢰 own country	EU를 신뢰	미국을 신뢰	중국을 신뢰
인도		89%	44%	64%	27%
인도네시아		74%	58%	54%	64%
이스라엘		72%	54%	70%	22%
독일		70%	71%	33%	23%
네덜란드		68%	68%	35%	25%
호주		65%	59%	30%	15%
캐나다		64%	57%	33%	17%
남아프리카공화국		64%	42%	50%	57%
튀르키예		60%	36%	23%	32%
영국		57%	56%	37%	24%
헝가리		56%	56%	56%	43%
스페인		55%	61%	34%	31%
스웨덴		55%	54%	25%	15%
한국		55%	53%	58%	21%
글로벌 평균		55%	53%	37%	27%
케냐		54%	58%	62%	61%
폴란드		53%	44%	37%	13%
멕시코		50%	35%	24%	38%
프랑스		47%	47%	21%	17%
나이지리아		46%	72%	79%	79%
미국		44%	43%	44%	13%
일본		41%	43%	41%	7%
이탈리아		37%	42%	32%	33%
브라질		36%	26%	35%	32%
아르헨티나		33%	31%	35%	39%
그리스		22%	38%	37%	34%

※ ‘자국을 신뢰 (own country)’ 응답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 (AI 혁신과 규제 우선순위 인식) 한국 응답 — 혁신 선호 70% vs 규제 선호 30%(글로벌 평균 혁신 58% / 규제 41%) ※ Figure 9.3.3, p.381 / Ipsos, Google

“AI 혁신과 규제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2025년”

- 전 세계적으로 응답자의 58%는 AI 혁신을 통해 과학, 의학 및 기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 반면,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을 규제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
-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는 혁신에 무게를 두는 경향

[표45] 2025년 AI 혁신과 규제 우선순위 인식 조사 결과

국가	AI 혁신 Advancing science, medicine, and other fields	AI 규제 Protecting industries through regulation
나이지리아	71%	29%
한국	70%	30%
아르헨티나	68%	32%
폴란드	67%	33%
일본	67%	33%
멕시코	66%	34%
프랑스	65%	35%
독일	63%	37%
벨기에	62%	38%
브라질	62%	38%
글로벌 평균	58%	41%
스페인	54%	46%
영국	54%	46%
아랍에미리트	53%	47%
미국	53%	44%
싱가포르	53%	47%
캐나다	52%	48%
이탈리아	52%	48%
호주	52% 50% 이상	48%
아일랜드	48%	52%
남아프리카공화국	47%	53%
인도	46%	54%

03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시사점

1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과 더 널리 쓰이기 위한 노력

□ 독자적인 AI 모델 생태계 조성

-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 8개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을 내놓으며 미국과 중국 다음의 세계 3위
 - 특히 정부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통해 LG의 엑사원(Exaone),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업스테이지의 솔라(SOLAR) 등 총 8개 모델이 최종 성과로 인정받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만의 탄탄한 기술력 입증

□ 전문 분야의 집중과 인력 구성의 특징

-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와 이미지 인식(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AI 인재의 전문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와 제조 강국인 우리의 산업 특성이 AI 연구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
- 연구 인력 중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은 세계 4위(42.5%)로 학문적 깊이가 매우 깊지만, 남성 연구자 비중(81.4%)이 매우 높은 편이라 향후 더 다양한 시각이 담긴 연구를 위해 성별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인 파급력 확대

- 인구당 AI 특허는 세계 1위지만, 이 특허들이 다른 연구에 인용되는 속도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편
- 이는 우리가 만든 혁신적인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의 표준이 되거나 실제 제품으로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식의 확산을 돕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

2 경제 및 산업 인프라 : 하드웨어 리더십과 민간 투자의 선순환 체계

□ 글로벌 AI 인프라의 중심이 된 K-반도체

- 한국은 AI 연산 속도를 결정짓는 HBM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 보유
 - OpenAI의 초거대 인프라 구축 계획인 ‘Stargate’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국내에도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논의가 활발한 것은 한국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필수 허브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 민간 투자 활성화와 벤처 생태계의 활력 제고

- 우리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17.8억 달러, 세계 12위)는 아직 선도국에 비해 부족한 현실
 - 투자자들이 당장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파괴적 혁신 가치에 더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새로 생겨나는 AI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클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현장의 빠른 AI 도입과 자동화 경쟁력

- AI 도입 증가폭은 세계 1위(+4.8%p)를 기록할 정도로 기술 적응력이 매우 빠르며 제조 현장의 로봇 설치 대수도 세계 4위 수준을 유지
 - 조선소나 공장에 AI를 입혀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현장’으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국가 중 하나

3 교육 및 인적 자원 : 탄탄한 인재층과 인재를 끌어당기는 힘의 강화

□ 미래 세대의 ‘AI 네이티브’ 화(化)

- ICT 분야 박사 졸업자를 세계 5위 수준으로 배출하며 탄탄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유지
 - 특히 우리 대학생들의 생성형 AI 활용률 증가폭은 세계 1위(+61%p)로, 이미 다음 세대는 AI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사용하는 ‘AI 네이티브’로 거듭나고 있음

□ 우수 인재의 국내 잔류와 유입을 위한 노력

- 다만, 핵심 연구자들이 더 나은 환경과 보상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인재 유출 현상
 -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 머물며 연구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고, 해외로 나간 인재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브레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 자원의 경쟁력 유지 요구

4 정책 및 거버넌스: 앞서가는 법제도와 사회적 공감대의 발맞추기

□ 법제도적 선점과 혁신을 향한 국민적 관심

-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며 기술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
 - 또한 국민의 70%가 ‘규제보다는 혁신’을 지지하고 있어, 정부가 공격적으로 AI 진흥 정책을 펼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동력을 확보

□ 정책의 현장 안착과 사회적 신뢰의 정합성

- 제도 구축 속도에 비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낮은 편
 - 기업들이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사례를 교훈 삼아 기술 도입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는 ‘소통의 기술’이 병행되어야 함

■ 참고자료

〈 국외 자료 〉

- 1) Stanford University HAI, AI Index 2026 (<https://hai.stanford.edu/ai-index/2026-ai-index-report>)
- 2) Stanford University HAI, AI Index 2026 DataSets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JTOg0iR0j5SijCwFutwWwDt143IW277?usp=sharing>)
- 3) Stanford University HAI, AI Index 2025 (<https://hai.stanford.edu/ai-index/2025-ai-index-report>)
- 4) Stanford University HAI, AI Index 2024 (<https://hai.stanford.edu/ai-index/2024-ai-index-report>)

[AI Policy Insights | 2026 Vol. 03]

2026 스탠포드 AI INDEX로 살펴본 우리나라 AI 현황 분석

- 발행일 : 2026년 6월
- 발행인 : 김형철
- 발행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 대표전화 : 053-230-1114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www.nia.or.kr

1. 『AI Policy Insights』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정책·법제 이슈, 산업과 기업의 혁신 사례를 폭넓게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기획·발간하는 심층 분석 보고서 시리즈입니다.
2.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이므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